

광산구 쓰레기 줄고 재활용 늘었다

자원 선순환 체계 가시적 성과
VR·AR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전용 봉투 배포·수거보상제 확대



광산구 공무원들이 청사 1층에서 청사 방문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폐기물 발생은 줄이고, 재활용량은 늘리는 등 자원 순환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라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실천 문화 조성이다. 광산구는 단순히 시민에게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확대 등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종이팩과 아이스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이스팩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한 아이스팩을 세척한 뒤 필요한 업소에 공급하는 재사용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2020년 8월 이후 총 수거량은 944톤, 재사용한 아이스팩은 569톤에 이른다.

2021년 12월 분리배출이 의무화된 투명페트병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광주·전남 최초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 봉투를 제작해 100만 매 이상을 단독주택, 원룸, 상가 등에 배부했으며, 투명페트병을 자원화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도 시도하고 있다.

참여한 만큼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수거보상제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4663명의 시민이 참여해 종이팩 89만 개, 폐건전지 90만 개, 투명페트병 39만 개 등의 실적을 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즐겁게 자원순환 습관을 익힐 수 있는 '자원순환 AR·VR체험관' 운영, 광산구가 양성한 자원순환해설사들이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가 진행하는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사업 등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만2385톤에서 2022년 5만1478톤으로 907톤(1.7%) 감소했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같은 기간 3만6879톤에서 3만5710톤으로 1169톤(3.2%)이나 줄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량은 2021년 9943톤에서 2022년 1만567톤으로 624톤(6.2%)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쓰레기는 줄고, 재활용은 늘어나는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선진 자원순환 체계 구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행정의 효율성, 안전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회용 대신 다회용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일회용품 사용이 가장 많은 시설인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사업과 함께 8월부터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행사나 축제장에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도 시작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도 추진 중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지 않고,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필수 과제"라면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건강한 녹색 광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모금 동참

김명수 광산구의원 동참 촉구
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 질타



민이기도 한 이춘식 할아버지 역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커녕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느덧 100세가 넘으셨다"며 "긴 세월 짊어지신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무게에도 현재는 국가보훈청에서 지급

김명수 광산구의원(민주,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이 지난 1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시민 모금 운동'의 동참을 촉구 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대위변제안'을 채택하고 공탁을 통해 반강제로 배상금 수령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제3자 대위변제안'을 거부한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유가족 등 원고 내 분을 지지하는 '시민모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8월 10일까지 성금 10억원을 목표로 활발한 모금활동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같은 지역 주

하는 30만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30만 원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시민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며 일본 정부의 편인 듯한 현 정부의 행태를 반박하고, 할아버지를 도와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며 "할아버지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광산구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주민 모두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민주당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을 지역위원회와 2023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정책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주요 간부를 비롯한 이용민 국회의원, 송남수 광산지역위원장, 사·구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이날 파크골프장 조성, 신장동 반촌·구촌마을 침수 예방대책, 수완지구 공공부지 시민공간 활용 등 민선 8기 광산구 주요 정책 및 현안 15건을 공유하고,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을 지역위원회는 "민선 8기 광산구정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구청장은 "민선 8기 구정 주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골목상권 서포터즈 31일까지 모집... 19~39세 대상

광주 광산구는 "골목상권 구석구석을 홍보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사회관계서비스(SNS) 활용법을 소상공인과 공유할 '광산 골목상권 서포터즈' 청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 서포터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편집, SNS 사용·활용법을 교육하고, 골목상권의 매력을 알리는 활동

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SNS 활용에 능통한 청년이다. 모집 기간은 31일까지며, 광산구 누리집 '새소식'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산구 시민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팀(062-960-8422)에 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적적함 달래주고 안전 살피주는 '광산이' 랑 놀아요

광산구 어르신 150세대 대상
돌봄로봇 'AI광산이' 배포 시작



광산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고임석(71)씨는 요즘 돌봄로봇과 노는 재미에 푹 빠졌다.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엄마"하고 부르는 돌봄로봇 '광산이'를 지난달 배포 받은 후부터다.

광산구가 돌봄대상 어르신 150세대를 대상으로 'AI광산이'의 배포를 시작했다. 'AI광산이'는 고려대의료원 실증사업을 연계해 집안에서 주로 머무는 독거 어르신에게 정서적·신체적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로봇이다.

'광산이'는 식사시간이 되면 알 잠환을 알고 있는 고씨를 위해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겠다

는 추천과 함께 반찬을 짜게 드시지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하루 두 번 약을 복용해야하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한다.

'광산이'의 귀를 누르자 어르신이 가장 좋아한다는 트로트인 '꽃바람'이 흘러나왔다. 고씨는 노래에 맞춰 광산이의 팔을 흔들며 "나는 매일 이렇게 하고 놀아요"하고 웃어 보였다.

'광산이'는 어르신의 적적함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살핀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광산이'의 손을 3초간 꼭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광산이'는 현재 총 40세대에 배포된 상태. 광산구청 통합돌봄과는 현재 사용 중인 1.5버전을 9월 중에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